

주말 시내는 덥고 번잡스러웠다. 아직 초봄인데도 걷는 내내 손부채질을 해야 하는 날씨였다. 지구 반대편에서 죽어가고 있을 북극곰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듯 문을 활짝 열고 에어컨을 틀어놓은 가게에서 훌러나오는 냉기에 라제쉬는 훌린 듯이 매장 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뭔지는 몰라도 대단해 보이는 기계들이 여러 대 늘어서 있었다. 손님들은 소파에 앉아 음료를 마시거나, 어떤 계약서에 서명을 하거나, 직원과 드잡이를 하고 있었다. 뭐 하는 가게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광경만으로는 좀처럼 짐작이 가지 않는다. 마침 입구에서 고객을 하던 직원이 라제쉬와 네인을 발견하고는 두 사람의 손에 팸플릿을 줘여주었다.

“안녕하세요! 지금 론칭 삼 주년 기념으로 휴먼 프린트 무료 체험 이벤트를 하고 있답니다. 맞춤형 커스텀으로 더 이상적인 남자친구를 만들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뭘 어떻게 해준다는 건지 짐작하기 어려운 캐치프레이즈보다는 무료로 제공해 준다는 수제 칵테일이 더 매력적이었다. 모처럼의 데이트니까 이런 일회성 이벤트에 참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고.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서자 아까 손님에게 멱살을 잡히고 있던 직원이 구깃 해진 셔츠를 펴며 활짝 웃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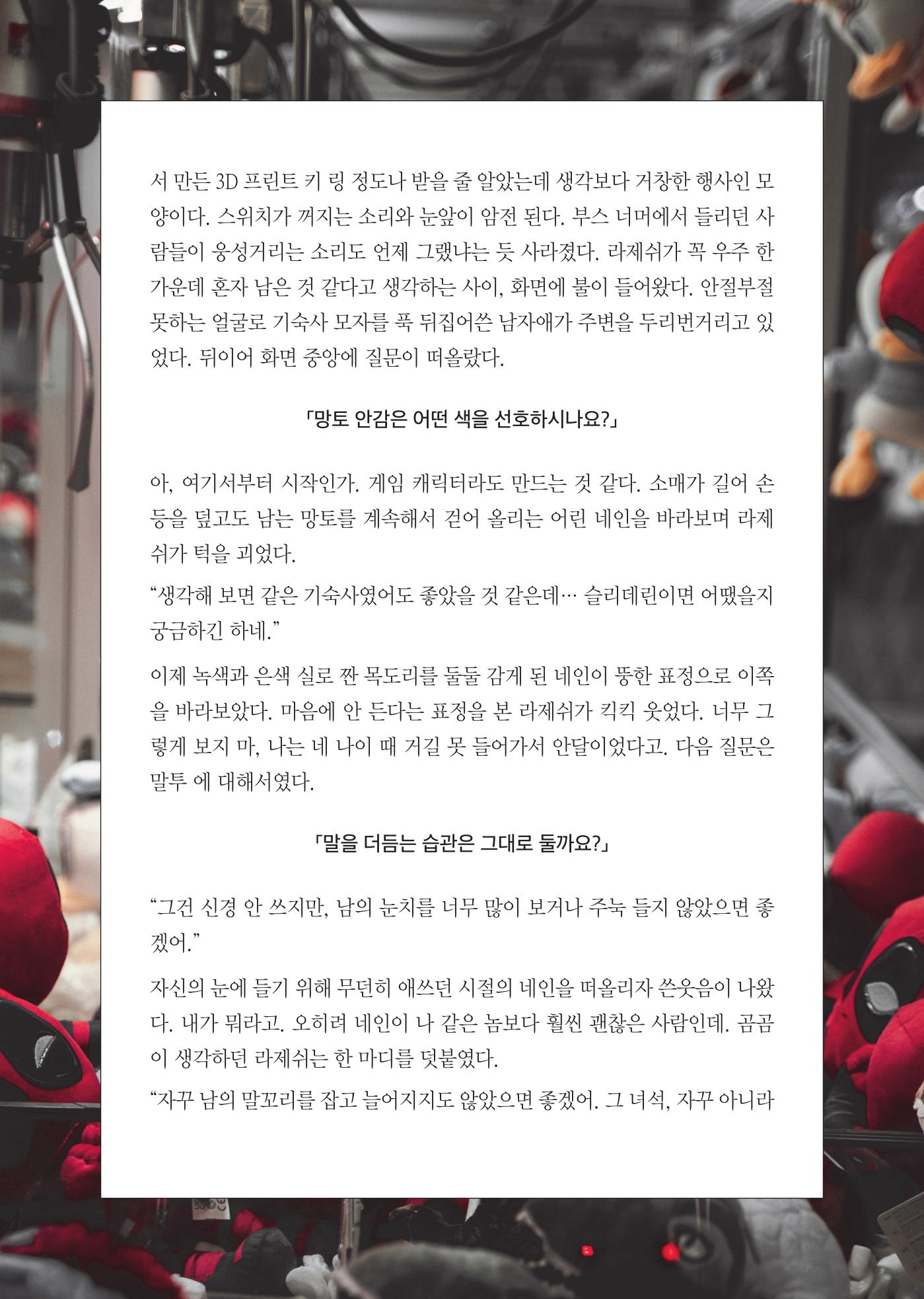
“휴먼 프린트 체험 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고객님들의 의뢰는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일행이셔도 각각 다른 부스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의 손에 어딘가로 질질 끌려가는 라제쉬를 네인이 망연하게 바라본다. 꼭 오르페우스 같았다. 라제쉬가 얼빠진 얼굴로 흰 종이에 빼곡하게 적힌 안전주의사항을 읽는 사이, 직원이 라제쉬의 머리에 전선이 연결된 무언가를 덕지덕지 붙였다. 이걸로 뇌파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전송 한다, 까지가 알아들은 말의 전부였다. 그 뒤부터는 아직 못 배운 마법 주문이나 다름없이 들렸다.

“이거 계속 붙이고 앉아 있는 건가요?”

“네. 제가 불을 끄고 나가면 바로 시작될 거예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라제쉬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눈앞의 까만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네인을 본떠



서 만든 3D 프린트 키 링 정도나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거창한 행사인 모양이다. 스위치가 꺼지는 소리와 눈앞이 암전 된다. 부스 너머에서 들리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 사라졌다. 라제쉬가 꼭 우주 한 가운데 혼자 남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이,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안절부절 못하는 얼굴로 기숙사 모자를 푹 뒤집어쓴 남자애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뒤이어 화면 중앙에 질문이 떠올랐다.

「망토 안감은 어떤 색을 선호하시나요?」

아, 여기서부터 시작인가. 게임 캐릭터라도 만드는 것 같다. 소매가 길어 손등을 덮고도 남는 망토를 계속해서 걷어 올리는 어린 네인을 바라보며 라제쉬가 턱을 괴었다.

“생각해 보면 같은 기숙사였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슬리데린이면 어땠을지 궁금하긴 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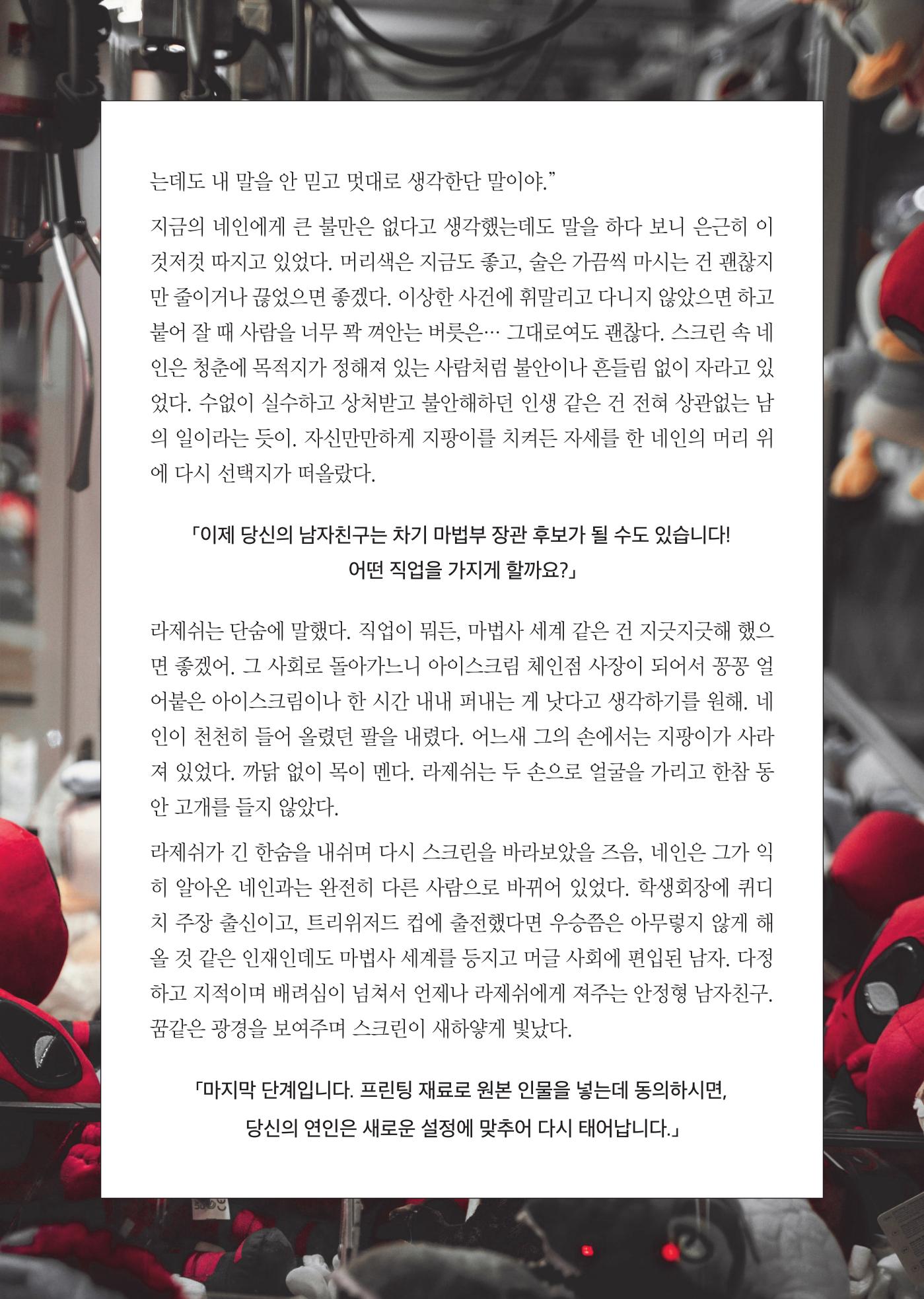
이제 녹색과 은색 실로 짠 목도리를 둘둘 감게 된 네인이 뚱한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았다.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을 본 라제쉬가 킥킥 웃었다. 너무 그렇게 보지 마, 나는 네 나이 때 거길 못 들어가서 안달이었다고. 다음 질문은 말투에 대해서였다.

「말을 더듬는 습관은 그대로 둘까요?」

“그건 신경 안 쓰지만,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거나 주눅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신의 눈에 들기 위해 무던히 애쓰던 시절의 네인을 떠올리자 쓴웃음이 나왔다. 내가 뭐라고. 오히려 네인이 나 같은 놈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인데. 곰곰이 생각하던 라제쉬는 한 마디를 덧붙였다.

“자꾸 남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그 녀석, 자꾸 아니라



는데도 내 말을 안 믿고 멋대로 생각한단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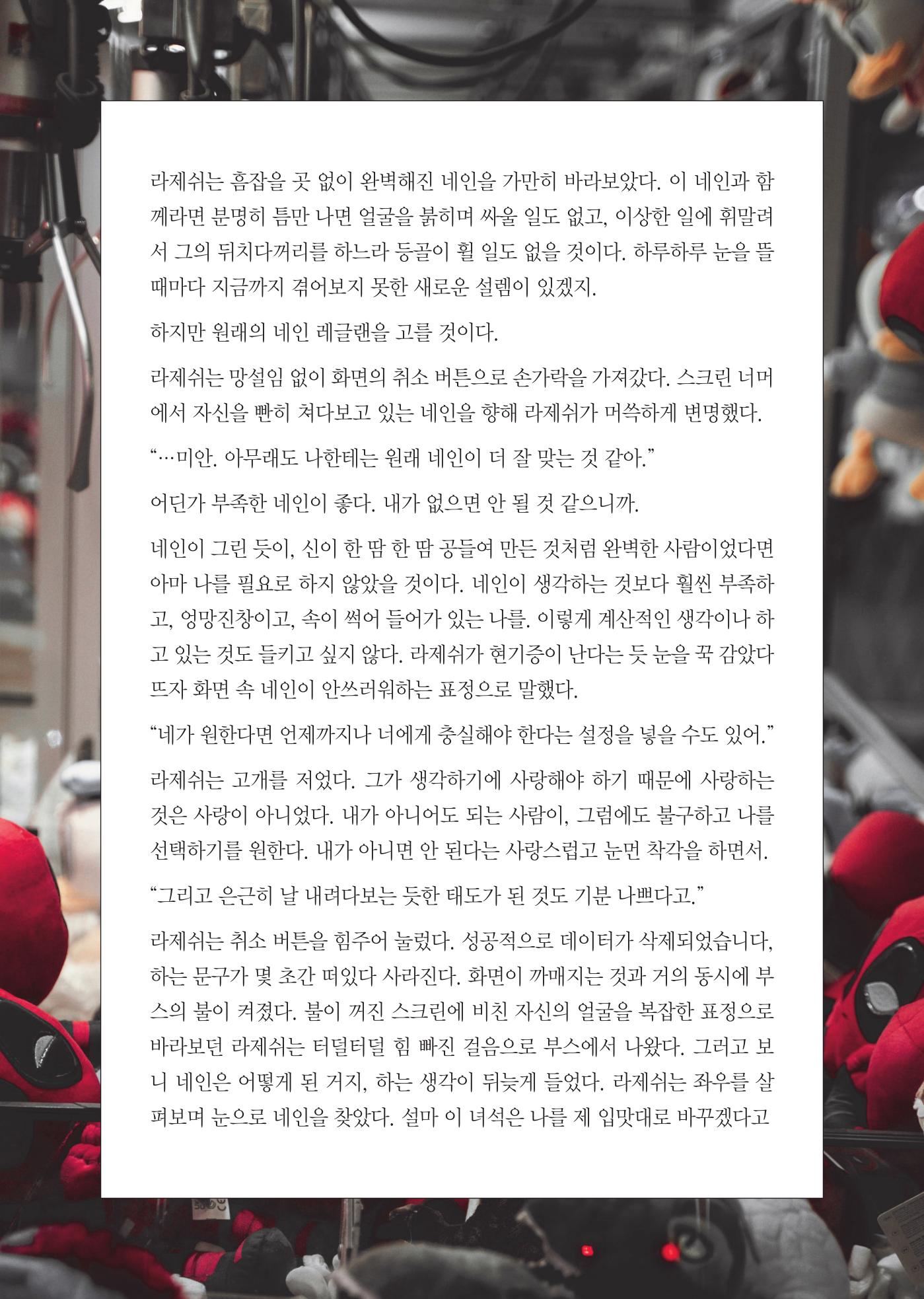
지금의 네인에게 큰 불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말을 하다 보니 은근히 이 것저것 따지고 있었다. 머리색은 지금도 좋고, 술은 가끔씩 마시는 건 괜찮지만 줄이거나 끊었으면 좋겠다.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고 다니지 않았으면 하고 붙어 잘 때 사람을 너무 꽉 껴안는 버릇은… 그대로여도 괜찮다. 스크린 속 네인은 청춘에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사람처럼 불안이나 혼들림 없이 자라고 있었다. 수없이 실수하고 상처받고 불안해하던 인생 같은 건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는 듯이. 자신만만하게 지팡이를 치켜든 자세를 한 네인의 머리 위에 다시 선택지가 떠올랐다.

「이제 당신의 남자친구는 차기 마법부 장관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게 할까요?」

라제쉬는 단숨에 말했다. 직업이 뭐든, 마법사 세계 같은 건 지긋지긋해 했으면 좋겠어. 그 사회로 돌아가느니 아이스크림 체인점 사장이 되어서 꽁꽁 얼어붙은 아이스크림이나 한 시간 내내 피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를 원해. 네인이 천천히 들어 올렸던 팔을 내렸다. 어느새 그의 손에서는 지팡이가 사라져 있었다. 까닭 없이 목이 멘다. 라제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다.

라제쉬가 긴 한숨을 내쉬며 다시 스크린을 바라보았을 즈음, 네인은 그가 익히 알아온 네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학생회장에 쿼디치 주장 출신이고, 트리위저드 컵에 출전했다면 우승쯤은 아무렇지 않게 해 올 것 같은 인재인데도 마법사 세계를 등지고 머글 사회에 편입된 남자. 다정하고 지적이며 배려심이 넘쳐서 언제나 라제쉬에게 져주는 안정형 남자친구. 꿈같은 광경을 보여주며 스크린이 새하얗게 빛났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프린팅 재료로 원본 인물을 넣는데 동의하시면,
당신의 연인은 새로운 설정에 맞추어 다시 태어납니다.」



라제쉬는 흠잡을 곳 없이 완벽해진 네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 네인과 함께라면 분명히 틈만 나면 얼굴을 붉히며 싸울 일도 없고, 이상한 일에 휘말려서 그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등골이 훨 일도 없을 것이다. 하루하루 눈을 뜰 때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설렘이 있겠지.

하지만 원래의 네인 레글랜을 고를 것이다.

라제쉬는 망설임 없이 화면의 취소 버튼으로 손가락을 가져갔다. 스크린 너머에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네인을 향해 라제쉬가 머쓱하게 변명했다.

“…미안. 아무래도 나한테는 원래 네인이 더 잘 맞는 것 같아.”

어딘가 부족한 네인이 좋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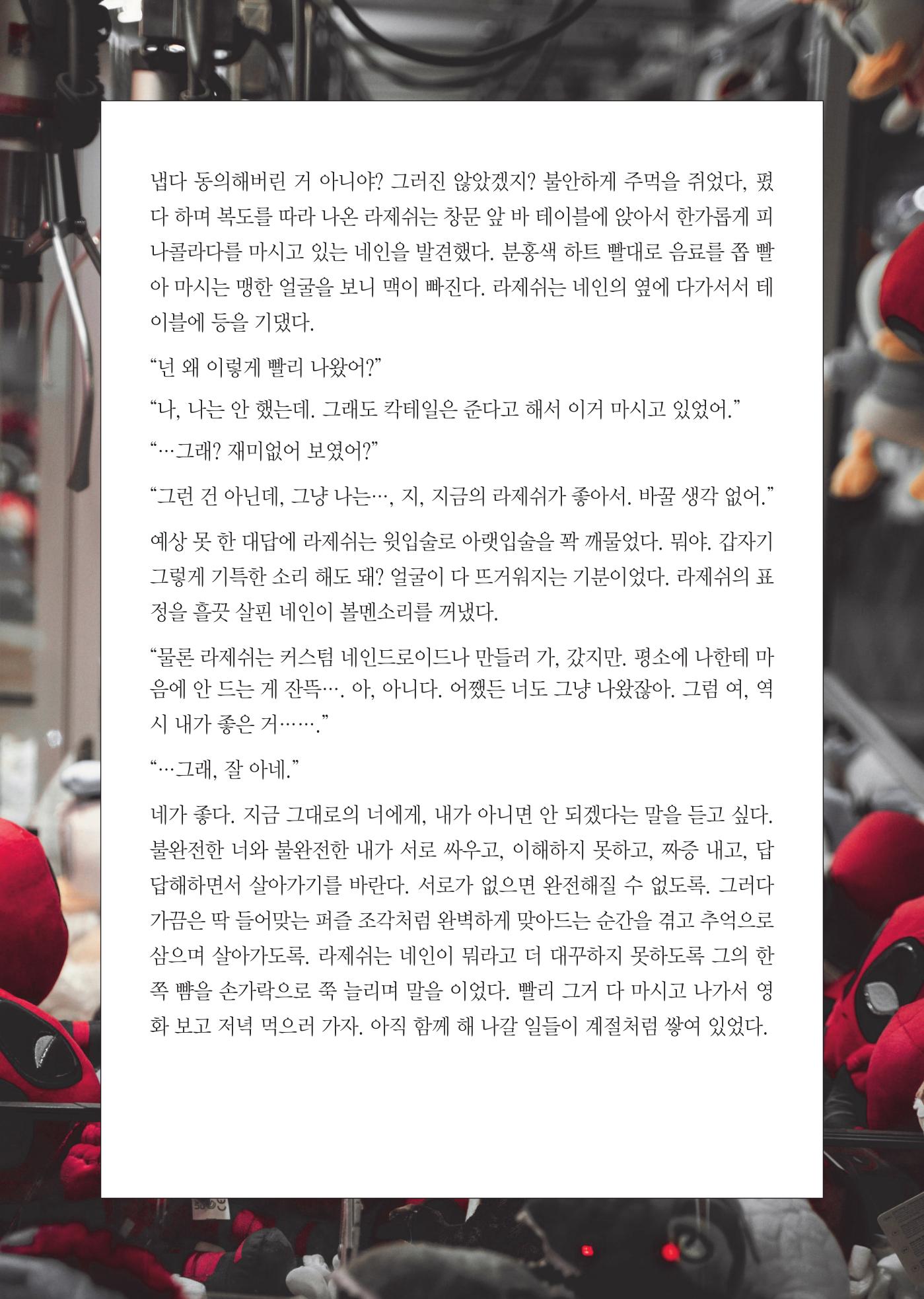
네인이 그런 듯이, 신이 한 땀 한 땀 공들여 만든 것처럼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족하고, 엉망진창이고, 속이 썩어 들어가 있는 나를. 이렇게 계산적인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도 들키고 싶지 않다. 라제쉬가 현기증이 난다는 듯 눈을 꾹 감았다 뜨자 화면 속 네인이 안쓰러워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네가 원한다면 언제까지나 너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설정을 넣을 수도 있어.”

라제쉬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생각하기에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내가 아니어도 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기를 원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랑스럽고 눈먼 착각을 하면서.

“그리고 은근히 날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가 된 것도 기분 나쁘다고.”

라제쉬는 취소 버튼을 힘주어 눌렀다. 성공적으로 데이터가 삭제되었습니다, 하는 문구가 몇 초간 떠있다 사라진다. 화면이 깨매지는 것과 거의 동시에 부스의 불이 켜졌다. 불이 꺼진 스크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라제쉬는 터덜터덜 힘 빠진 걸음으로 부스에서 나왔다. 그리고 보니 네인은 어떻게 된 거지,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 라제쉬는 좌우를 살펴보며 눈으로 네인을 찾았다. 설마 이 녀석은 나를 제 입맛대로 바꾸겠다고



냅다 동의해버린 거 아니야? 그러진 않았겠지? 불안하게 주먹을 쥐었다, 펴다 하며 복도를 따라 나온 라제쉬는 창문 앞 바 테이블에 앉아서 한가롭게 피나콜라다를 마시고 있는 네인을 발견했다. 분홍색 하트 빨대로 음료를 쭈 빨아 마시는 맹한 얼굴을 보니 맥이 빠진다. 라제쉬는 네인의 옆에 다가서서 테이블에 등을 기댔다.

“넌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

“나, 나는 안 했는데. 그래도 칵테일은 준다고 해서 이거 마시고 있었어.”

“…그래? 재미없어 보였어?”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나는…, 지, 지금의 라제쉬가 좋아서. 바꿀 생각 없어.”

예상 못 한 대답에 라제쉬는 윗입술로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뭐야. 갑자기 그렇게 기특한 소리 해도 돼? 얼굴이 다 뜨거워지는 기분이었다. 라제쉬의 표정을 흘끗 살핀 네인이 볼멘소리를 껴냈다.

“물론 라제쉬는 커스텀 네인드로이드나 만들려 가, 갔지만. 평소에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잔뜩… 아, 아니다. 어쨌든 너도 그냥 나왔잖아. 그럼 여, 역시 내가 좋은 거…….”

“…그래, 잘 아네.”

네가 좋다. 지금 그대로의 너에게,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말을 듣고 싶다. 불완전한 너와 불완전한 내가 서로 싸우고, 이해하지 못하고, 짜증 내고, 답답해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서로가 없으면 완전해질 수 없도록. 그러다가끔은 딱 들어맞는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맞아드는 순간을 겪고 추억으로 삼으며 살아가도록. 라제쉬는 네인이 뭐라고 더 대꾸하지 못하도록 그의 한쪽 뺨을 손가락으로 쭉 늘리며 말을 이었다. 빨리 그거 다 마시고 나가서 영화 보고 저녁 먹으러 가자. 아직 함께 해 나갈 일들이 계절처럼 쌓여 있었다.